

설교

“욥의 믿음” (Faith of JOB)



주님 품 안에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
났습니까?

욥 2:7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
였다.

Jb 2:7 So Sata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struck
Job with

욥 2:8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Jb 2:8 And he took a piece of
broken pottery with which to
scrape himself while he sat in the
ashes.

옴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 2:9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Jb 2:9 Then his wife said to him, "Do you still hold fast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그의 아내의 반응에 대한 옴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욥 2:10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Jb 2:10 But he said to her, "You speak as one of the foolish women would speak. Shall we receive good from God, and shall we not receive evil?" In all this Job did not sin with his lips.

여러분이 옴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옴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혼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골방에 들어가라"

“홀로 올바르게 서야 참된 힘을 발휘한다. 모든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單獨者)가 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존철학의 선구자
키에르케고르
(1813-1855)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설사 온 세계가 무너져 버리더라도
내가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옴의 운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
에게만 해당되지 우리와는 전
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에 이르러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
습니까?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욥 1:9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Jb 1:9 “Does Job fear God for no reason?”

욥 2:3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Jb 2:3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the earth, a blameless and upright man, who fears God and turns away from evil? He still holds fast his integrity, although you incited me against him to destroy him without reason."

이런 읍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 27:46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Mt 27:46 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e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
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
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Gn 3:15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 offspring;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그래서 우리도 옴이나 예수님
처럼 똑같이 모든 고난을 당해
야 한다는 말입니까?

욥 42:5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
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Jb 42:5 I had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 sees you;